

## 대중매체에 나타난 타자 재현 양상 연구 : 2000년대 TV와 현대소설을 대상으로

김진희, 오윤호, 이수안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나 정치권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우려와 함께 다양한 정책과 사회 지원을 병행해 오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가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반증한다.<sup>1)</sup> 이것은 우리나라가 80년대 이후 후기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양상(인구수의 감소, 3D 업종의 기피, 도시 여자들의 시골 기피 현상, 주변국에 비해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현상 등) 속에서 동남아인, 동유럽인, 중국 교포, 탈북자 등 다양한 외국인 이주자들의 입국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사회적 환경과 문화적 지형이 바뀌는 문제만이 아니라 복잡적이고 문제적인 한국 사회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외국인

---

**김진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HK교수

**오윤호**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HK교수

**이수안**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HK교수

- 1) 외국인 이주 현상과 관련하여 한국에서도 최근 20년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7년 9월 현재 체류 외국인의 수가 단기 체류외국인을 포함하여 100만명을 약간 넘었다고 하며 이는 국내 주민등록인구의 약2%에 해당한다고 한다.

노동자의 인권 문제, 이들 자녀들의 교육 문제 및 성장 문제,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 활동 혹은 외국인의 범죄활동, 1세대·2세대 외국인들의 국내 거주권 및 시민권에 관한 문제 등 시민과 디아스포라 사이의 문화적이고, 경제적이고, 법률적인 갈등은 결국에는 사회전반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sup>2)</sup> 이에 다문화 사회의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관심은 유예된 사회적 갈등에 대한 공포 혹은 예방의 차원에 놓여 있다.

최근 이러한 외국인 이주자의 삶에 대한 인문학적 실천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연구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테제로 설정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의 삶과 정체성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또 하나의 주체로 대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다문화적 현상에 대한 무지가 낳은 편견을 극복하고, ‘동정’과 ‘시혜’와 같은 왜곡된 인간애를 지양하는 주체로서의 ‘우리’를 설정하는 문제는 복잡한 사회적, 윤리적, 철학적 문제와 얽혀 긴밀하게 있다. 데리다 식으로 말하자면 그들(타자)에 대한 절대적 환대는 불가능할 뿐이지만, 인문학적 관심을 통해 문제적 상황을 명료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중문화 속에 형상화된 외국인 이주자의 재현에 주목함으로써 현실 사회 문화 안에서 타자로서의 외국인 이주자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TV 속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소셜 속에 형상화된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재현문제를 통해 외국인 이주자를 타자로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을 포착할 수 있으며, 그 시선 속에 작동하는 내면화된 타자담론화의 양상을 확인하려고 한다. 즉 그들은 왜 타자인가가 아니라 그들은 왜 우리 안의 타자가 되어가는가를 고민하려는 것이다.

---

2) 1970-80년대 독일 정부는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터키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수행했다. 그러나 80-90년대를 거쳐 이주 2세대, 3세대가 될수록 터키로 되돌아가는 수는 적어지고, 베를린 등 대도시 주변에 슬럼가에 모여 살기 시작하며, 2000년대에는 심각한 사회문화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렇게 ‘타자’를 규정하고, 재현하는 타자담론화에 대한 연구 시각은 젠더 분야 연구에서 다루어졌던 연구성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형상화가 ‘한국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얼마나 외국인 이주자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게 만든다. 스피박은 「하위주체는 말할 수 있는가?」에서 “하위계층이 스스로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하위계층은 언제나 왜곡되고 ‘이해관계가 개입된’ 형태로 인식되고 재현되고 대변될 뿐인가”(무어-길버트 200)라는 포괄적인 질문을 던지며, 하위주체의 정체성을 균열시키는 식민주의와 그 담론화 양상을 비판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우리 자신도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식민지를 경험하고 자본주의 시대의 제3세계를 경험했지만 서구의 경제구조와 지식담론을 답습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본과 노동의 역학적 관계 속에서 제3세계 노동자들에 대해 철저히 주체로서 기능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 이러한 양상은 한국인의 이중적 정체성에 극명하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하위주체인 외국인 이주자의 정체성은 어느만큼 정당하게 형상화될 수 있을 것이며, 소설적 형상화 속에 내면화되어 있는 주체-객체 간의 관습적이면서 권력적인 억압의 논리를 어떻게 폭로하고 객관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본고는 외국인 이주자의 정체성에 대한 이론적 추상성을 극복하고,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 있는 타자담론화의 양상과 상호 주체로서의 외국인 이주자의 젠더 정체성을 밝히기 위하여 문화해석학적 연구방법을 원용할 것이다. ‘재현 매체’(TV 방송 및 소설)에 나타난 외국인 이주자의 형상화를 분석하여 ‘외국인 이주자는 우리 안에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살펴보고 우리 안의 또다른 ‘주체’로서의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윤리적이고 인문학적 논의를 시도하려 한다.

## 1. 문화해석학의 ‘이해’와 젠더연구의 페미니스트 입장인식론적 방법론

사회과학 중에서도 문화해석학에서는 ‘해석’을 바탕으로 사회적 행위를 ‘이해’하는 방법론을 발전시켜왔다. 막스 베버(Max Weber)는 “사회학은 사회적 행위를 해석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그 과정과 결과를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과학”(텐브룩 1967)이라고 정의하고 부연하여 “행위란 행위하는 개인이 의미를 부여하는 모든 인간행동을 포함한다”고 말함으로써 사회적 행위의 주관적 성격과 그에 대한 ‘이해(verstehen)’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또한 일상생활을 미세하게 들여다보는 방법론을 통하여 일상의 사회학을 발전시킨 알프레드 슈츠(Alfred Schutz)는 후설의 현상학을 사회과학 방법론으로 접목시키면서 사회과학의 대상이 생활세계이며 따라서 사회과학은 이 일상적 생활세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그것에 부여하고 있는 의미를 최대한으로 분명하게 해명하는 데 그 학문적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Schutz 1967). 이로써 문화해석학적 연구의 주요 목표가 사회 내의 문화를 해석하고 일상생활 속의 개인의 미세한 사회적 행위를 이해하여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슈츠가 후설의 현상학을 사회과학에 응용한 방법론은 1960년대 초에 민속연구방법(ethnomethodology)로 발전하였으며 이는 사회학의 주요 방법론이 객관적 자료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분석하는 양적 방법론으로부터 질적 방법론으로 그 비중을 달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학의 연구 방법이 사회 현상을 특정한 변수에 따라 통계와 확률로 설명하는 양적 방법론으로부터 질적 방법론으로 전이되어 갔다는 점은 사회학의 관심이 사회구조에 대한 거시적이고 객관적 설명으로부터 점차 개인의 주관적 삶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으로 옮겨갔으며 이는 우선 이론이 선도하면서

방법론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를 개인의 주관적 행위와 타자와의 반응과 타협이 이루어지는 장으로 본다는 새로운 관점의 도입을 뜻하기도 한다. 민속지적 연구방법은 문화인류학에서 발전하여 사회학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참여관찰과 심층면접, 그리고 구술사 연구를 주요 방법으로 삼고 있다. 이는 젠더연구에서도 주요 연구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연구방법의 핵심적인 전제가 연구자(researcher)와 피연구자(researched)간의 위계적 위치설정을 기본적으로 배제한다는 점이다. 이는 젠더연구에서 중요한 방법론으로 자리잡고 있는 ‘페미니스트 입장 인식론(feminist standpoint epistemology)’에 근거를 갖고 있다.

행위와 분석 모두를 중요시하는 페미니스트 입장이론과 인식론은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즉 연구자-피연구자와의 관계, 연구경험과 같은 감성, 연구자의 지성적인 경력, ‘현실들(realities)’이 서로 상이한 점과 이를 통해 연구자와 피연구자를 이해하는 것을 어떻게 조절하고 적절히 운영하는가 하는 점, 그리고 조사를 마치고나서 연구와 논문쓰기에 있어서의 복합적인 권력의 문제 등이다.

문화해석학적 방법론과 페미니스트 입장 인식론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주요한 논의는 사회과학의 핵심 문제가 ‘상호주체성(inter-subjectivity)’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라는 것이다. 즉 우리의 존재론적 차이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한다고 가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타자들 속에서 인식하고 그들을 우리 속에서 인식하면서 ‘경험을 나눈다’는 사실, 그리고 ‘일반적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상호주체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것에 대항하여 시험될 수 있는 사회세계(the social world)의 이론적 개념정의를 생산한다. 이것은 여성주의 연구 안에서 ‘이론’의 특성에 관련된 중심적 질문을 제기한다. 따라서 젠더 관점에서 타자를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할 점은 상호주체적 입장의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피연구자를 대상화하지 않고 현실에 실천적 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화해석학적 연구 방법론은 대중 문화 텍스트 분석에 문제적 적용할 수 있다. 즉 대중문화 텍스트를 생산하는 작가 혹은 PD, 또 텍스트 안의 허구적 화자나 나레이터 등의 시선을 통해 연구자와 피 연구자의 모델을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사회학 연구에서와는 달리 대중매체 재현에서는 상호주체적 관계의 대상을 누구와 누구로 설정해야 하는가가 논점이다. TV를 예로 들자면, 실제의 외국인 이주자가 있고, 그것을 재현하는 매체와 그 텍스트 속에 재현된 외국인 이주자가 있으며, PD가 있고, 실제 시청자가 있다. 실제 시청자는 상호주관적 관계를 맺어야 할 대상이 실제 외국인 이주자, 재현된 외국인 이주자, PD 등 여러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가 매체의 재현 특징까지 덧붙여진다면, 실제 시청자가 실제 외국인 이주자와 상호주관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 된다. 본고에서는 실제 외국인 이주자보다는 텍스트 속에 재현된 외국인 이주자를 대상으로 실제 독자(시청자 포함)와의 상호주관적 관계를 통한 상호주관성 형성의 가능성을 연구하려고 한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 문화 텍스트가 매체적 특성을 각각 갖고 있기 때문에, 상호주관적 관계를 맺는 주체들 사이에서 '투명'하게 작동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갖는다. 잠시 언급했지만 TV프로그램의 경우는 카메라의 시선과 PD의 의도가 중요할 것이며, 소설에서는 서술자의 목소리와 작가의 서술 전략이 상호주관적 관계맺기에 관여하게 된다. 마샬 맥루한은 의사소통이론에서 정보는 매체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노이즈에 노출되고, 그 노이즈 역시 정보가 갖고 있는 내용이 된다고 보았다. 서사이론에 있어서도 서술자는 이데올로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맥락에 따라 독자에게 전달해야할 정보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매체의

투명성을 기대하기보다는 그 불투명성이 내포한 담론화의 양상과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확인하는 내용이 논의의 초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런 방법론을 토대로 서술자의 서술 권력이 갖고 있는 서사 권력이 관계 맺는 젠더의 문제나 시점에 따른 인물형상화의 변화에 내재한 여성 정체성, 아동 정체성 형성의 문제, 그리고 제국주의적이고, 가부장제적인 담론을 은폐한 서술 재현의 이데올로기적 특징 등을 고찰할 것이다.

## 2. 대중 미디어에 나타난 결혼이주여성의 타자적 재현

한국에서 국제결혼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올림픽 개최 이후 우선적으로 중국동포 여성들과 한국 농촌남성들 간의 결혼이 급격히 많아지면서이다. 농촌남성의 배우자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연변처녀, 농촌총각 짝짓기”사업이 추진되어 집단적으로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2006년에 실시한 한 조사(2006, 한건수·설동훈)에 의하면 조사 대상 결혼중개회사에 의해 중개되는 국제결혼 상대 중 베트남 여성이 가장 많고(80.4%), 중국(43.5%), 필리핀(27.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도 결혼중개는 미국의 '메일-오더-신부 mail-order-bride'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가난한 외국여성들의 경우에는 자기 나라를 떠나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이 결혼을 통한 것이다. 글로벌 하이퍼가미 global hypergamy<sup>3)</sup> (Constable, 2003) 현상은 말

---

3) 하이퍼가미(상승결혼)는 (구어체로 말해 상층으로 결혼해가는 것)은 자기와 같거나 보다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 또는 계급적 지위의 배우자를 찾는 행위나 현상을 말함(위키백과).

Hypergamy (colloquially referred to as marrying up) is the act or practice of seeking a spouse of equal or higher socio-economic status, or caste status than oneself. (<http://www.wikipedia.org>)

그대로 자본주의적 전지구적인 보편적 현상임이 역사적으로 등장했던 여러 형태의 국제적 중매결혼에서 특히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주여성의 정체성은 원주민 대 새롭게 유입된 정착민(settler)의 관계에서 주체와 타자의 관계로 치환되면서 변형과 차이를 전제로 한 교섭을 통해 형성된다. 트린 민하(Trinh T. Minh-ha)<sup>4)</sup>는 근대적 개념인, 주관성에 대한 인식론에서 제기된 내부자/외부자의 이분법을 거부함으로써 제3세계 여성으로서의 타자의 정치학을 제의한다. 남성의 타자로서의 여성, 서구의 타자로서의 원주민에 대한 논의는 정체성의 식민화를 드러내지만 이 또한 내부자/외부자 이분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 경계를 해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외부자에 의한 타자성 확인은 문화적 차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하는 외부자의 의지가 작용한 결과이며 이때의 외부자는 이주여성 연구의 경우 거주국의 남성주체적 사회의식이라고 간주된다.

타자성(Otherness)을 위협하는 것은 그러므로 결정적 이미지-레퍼토리에 속하는 형상으로 전환되어야한다는 점을 들어 이름짓기, 또는 정체성 획득이 타자성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Minh-ha 1989, 54). 민하에 따르면 이름짓기는 또한 타자를 재현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과학과 예술의, 다큐멘터리와 픽션을, 보편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을, 객관성과 주관성을,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을, 그리고 외부자와 내부자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시 개봉하는 것과 같다(Minh-ha 1991, 66). 타자가 자신 고유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가가 중요하며 이것은 목소리를 부여하는 것이 된다.

---

4) 민하의 원주민/이주민(서구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Suan Lee. "Surfing the Skin: Images of the Brides as the Sexualized Other." p.41~42. *A/W/S* Vol. 16 No. 3, Asian Center for Women's Studies.

이로써 이들 국제결혼에 내재해있는 문제는 남성과 여성간의 불균형한 성역할 수행에서 온다기 보다는 서로 경제적 환경이 동등하지 않은 이국민 간의 결혼이, 특히 민화가 이론화한 바 있는 남성'토착민'과 여성 '이주민'의 결합이 금전적인 거래의 형식을 띠고 이루어진다는 데에 있다. 게일 러빈(Rubin 1979)이 '여성의 교환'이라는 행위가 갖는 인류학적 의미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다른 종족 내지 인종 간의 결혼에서 대부분 여성이 교환되는 형식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이 과정에서 결코 양성 간의 평등한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된 바 있다. 한국사회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과정에서 이러한 러빈의 통찰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꾸리는 가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그 2세들이 성장하면서 이주여성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2세들의 사회적 적응과 통합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동인이 되고 있다. 어느새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서 가장 충격적은 연착륙을 하는 것이 커다란 사회적 과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이 강조되는 맥락에는 이들을 무의식 속에서 타자로 인식하는 사회적 통념을 깨뜨리고 의식적으로 '우리'속에 합류시키자는 정책적 권유가 들어있다.

사례분석에서는 다문화가정이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재현해내는 다큐멘터리 [러브 인 아시아(KBS-TV)]와 L전자 광고, 그리고 이들과는 반대의 축에서 결혼이주여성의 현실사회에서의 어두운 측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언론매체가 다루는 사건 사고에 나타나는 결혼이주여성의 실상과 이미지를 대비해 보고자한다. 현실(fact)이 보여지는 방식과, 재현을 통해 현실이 이미지화하는 방식 사이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삶과 이들의 문화가 어떻게 해석 가능한지, 그리고 다문화사회 속의 타자에 대한 시선은 어떠한지 분석하면서 전지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혼이주라는 맥락에서 이들의 타자적 입장을 바라보는 '입장이론(standpoint theory)'의 방법론화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 1) TV매체의 기획물에서 재현되는 결혼이주여성

[러브 인 아시아는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이들을 직접 출현시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구성하여 보여주는 KBS-TV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이다. 2005년 11월에 <전남 함평의 필리핀에서 온 아나벨>로 첫 방송을 내보낸 이후 매주 1회씩 2010년 10월 5일 현재까지 총 241회 방영한 장수 프로그램 중 하나다. 먼저 KBS의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러브 인 아시아] 프로그램의 내용을 이루는 주요 범주가 이주민, 특히 결혼이주여성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밝혀놓은 대로 기획의도는 “국경을 넘어 꿈과 사랑을 이어가는 국제결혼 이민자들의 가족사랑 프로젝트”, “한국으로 꿈을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가족 감동 프로젝트”, 그리고 “한국과 아시아, 그리고 세계를 잇는 이해와 나눔의 품앗이 프로젝트”라는 설명으로 요약되고 있다. 또한 “국내 거주 외국인 백만 시대를 맞아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달라도 이제 그들은 결혼이민자로, 외국인 근로자로 우리가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야 할 이웃이자 형제들”임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획의도를 구체화한다; <러브인아시아>는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가 사랑으로 맺어지는 이해의 품앗이로 그들을 또 하나의 가족, 다정한 이웃으로 보듬기 위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가족의 가치와 정(情), 그리고 그들에 대한 관심을 열린 시각으로 담아낸다(www. kbs.co.kr).

제작방향에 대해 밝힌 내용은 이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목표가 다문화 사회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아시아와 세계로... 우연이 인연으로, 인연이 필연으로 승화되는 ‘지구촌 가족 감동’이라는 문구로 지구화시대의 다문화가족의 구성에 대한 제작방향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마음이 마음에게... 문화이해와 인식의 품앗이를 통해 하나되는 ‘친한 친구’로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를 권장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아닌 우리로... 다문화 시대의 꿈과 사랑으로 통하는 ‘또 하나의 이웃’”으로 다문화사회에서 공존하는 방식과 사회통합의 감성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성은 이주민의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보여 주면서, 이들이 대체로 지금까지 본국 방문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고향을 방문하여 가족과 재회하고 며칠간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희망찬 미래를 기약하는 한국행으로 마무리하는 패턴으로 이루어진다. 대다수의 경우가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이 대상이 됨으로써 위의 패턴이 정형화되어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당사자의 출연신청, 또는 주변의 추천에 의하여 신청을 하면 그중 선별된 이주여성, 혹은 이주민이 직접 출연하여 생활현장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이주여성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주여성 또는 다문화가정의 가족구성원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의 일상을 보여주고 또한 자국의 부모,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을 넣음으로써 이들의 ‘고향을 떠나온’ 처지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준다.

한편 페미니스트 입장이론적 인식론을 원용하여 분석 가능한 사례가 L사의 〈사랑해요 코리아, 사랑해요 OO〉 기업광고인데 이는 “다문화 사랑”이라는 시리즈명으로 현재 3편까지 제작되어 방송되고 있다. 이 시리즈의 1편은 조선시대 과거를 보는 김홍도 풍의 그림으로부터 시작되어 피부색이 어두운 혼혈인이 과거시험에 장원급제하여 어사회를 받고 한국인의 손과 혼혈인의 손이 함께 그리는 하트마크를 바탕으로 하여 엔딩 자막이 〈사랑해요 코리아, 사랑해요 OO〉으로 나오면서 끝난다. 조선시대의 과거시험장으로 무대를 설정한 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지만 다른 조선인 선비들과 함께 과장에서 실력을 겨루고 급제를 한다는 설정은 우리 사회의 제도에 완벽하게 편입되는 다문화가정 출신 혼혈인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사회통합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광고는 비록 <러브 인 아시아>처럼 당사자가 직접 출연하는 것은 아니지만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을 혼혈인, 또는 이주자로 설정함으로써 그들의 입장에서 한국사회의 주류 제도에 편입하는 과정을 - 지금의 상황에서 추정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과거시험의 합격 등 - 그려냄으로써 상호주체성에 대한 인식을 사회구성원에게 확장시킨다는 의미를 지닌다.

## 2) 타자적 입장에 대한 인식: 사건 기사에 투영되는 결혼이주여성의 피해자 이미지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건 기사는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물리는 피해자로서의 이주여성을 드러내주고 있다.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는 2010년 7월 정신질환자인 남편(47세)에게 결혼 1주일 만에 살해당한 베트남남부 루따(가명, 20세)씨의 경우와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3년 4월 15일에 PD수첩에서 방영된, 남편의 폭력을 피해 달아나다 10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은 필리핀 여성 따따의 경우가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가장 극단적인 경우다. 한편 나이가 자기보다 27세나 많은 이혼한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두 딸을 낳았지만 둘째 출산 직후 이혼당하고 두 딸은 다시 남편이 전부인과 재혼하여 키움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리모의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진 투하(가명, 24세)의 사건이 있었다.

위의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결혼중개회사의 무분별한 중개로 인하여 문화적 타자이자(언어가 통하지 않는 문제 - 루따 사례), 힘없는 이방인 여성(따따 사례), 성적 대상화의 대상(투하 사례)으로서의 타자의 문제로 집약된다. 이러한 사건으로부터 보여지는 현실은 사건을 접하는 한국인들에게 결혼이주여성의 이미지를, 한국이라는 문화적 타향에서 철저하게 타자로서 소외당하는 여

성으로서의 이미지로 고정되게 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따따의 경우에서 보듯이 한국남성의 가부장적 태도로 인한 외국인아 내의 인권유린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의 비교적 가난한 농촌출신 여성들은 대개의 경우 부모와 형제의 생계를 위하여 자국보다 경제적 여건이 나은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본국의 가족을 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조건을 찾다보니 결혼중개회사의 여러 가지 조건과 부합되어 오게 된다. 결국 동남아시아 여성의 성과 가사노동 제공, 그리고 세대재생산이 결혼이라는 형식으로 결혼중개회사의 상업적 결혼중개에 의해 한국의 농촌남성에 게 제공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혼의 경우 결혼당사자간의 문화적 이질감과 서로 다른 기대치 등에 대한 탐색이나 조정의 과정도 거칠 거를 도 없이 서로 최소한의 조건이 맞으면 신랑 측의 비용으로 바로 결혼에 진입하기 때문에 거의 매매혼의 성격을 띠다고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타자화되지 않는 방법은 다음의 네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이들의 떠나온 homeland와 정착하는 이주국의 문화가 그 차이를 인정받으면서 동등한 문화로 평가되고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로써 문화혼종성을 매개로 새로운 문화가 생산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받아 들여져야할 것이다. 두 번째로 결혼과정에서 여성들의 보다 적극적인 선택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극대화 된 이윤을 목표로 하는 결혼 중개회사가 중개하는 일종의 매매혼 형태가 아닌, 주체적으로 결혼상대자를 선택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이주해온 여성들이 이루는 다문화가족(multicultural family)을 일방적으로 한국 문화에 통합하는 방식의 다문화 정책이 수정되어 진정한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의식 확산에 초석이 되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회적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여성들의 주체적 노력 또한 필요하다. 비록 결혼과정에서 중개회사를 통하여 산포되어있는 개인으로서 타자화과정을 거쳐서 이주해왔으나 한

국사회에서 이주여성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 예를 들면 커뮤니티 형성 등을 통해 ‘영원한 이방인’으로서의 타자적 위치로부터 주체적 위치를 찾아야 할 것이다.

### 3. 이주 노동자 소설에 나타난 소통의 가능성

언급했듯 20세기 후반 이후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체제에서 자본주의 확장에 따라 국경은 빠르게 해체, 재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속하고, 복잡하며 광범위한 이주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오늘날은 그야말로 이주노동자 시대로 구분된다. 한국 사회도 IMF 이후 본격화된 이주노동자의 등장은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상이 되었다.

문학작품 역시 2000년대 이후 이런 현실을 문제 삼으며 창작되고 있는데, 특히 소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주의 문제, 그리고 이주(여성)노동자 및 결혼 이주자 등의 문제는 한국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타자의 등장과 그들과의 소통의 필요성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삶을 그리는 작품들에 대한 비판적 성찰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이들 비판은 결국 작가가 타자의 삶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판단은 소설 작품에 대한 분석적 평가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타자에 관한 절대적 환대나 소통의 문제가 가치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미학적 구조로서 소통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이다. 이는 타자의 말을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화자의 입장에 의해 해석되거나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타자가 말하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본고는 소설 작품에서 타자와 주체의 관계, 그리고 소통의 가능성을

보기 위해 서사의 시점과 화자, 그리고 서술, 재현되는 인물들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타자의 재현 양상을 살펴보려 한다. 작가에게 있어 시점은 일차적으로 소재를 통제하고 거기에 형식을 부여하는 방법이므로 작가가 어떤 시점을 선택하고 있는가를 통해 대상에 대한 작가의 태도 역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소설 안에서 이주노동자/ 타자로 그려지는 인물에 대해 작가가 어떤 화자를 내세워 주체-타자의 관계 맺음을 하는가의 문제에 주목할 수 있다. 이는 소설을 통해 소통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작중 화자와 인물, 또 작가와 인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소설 속의 화자가 이주노동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혹은 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가 등의 문제는 텍스트 안에서의 소통을 넘어 현실 안에서 타자들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까지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점과 화자에 대한 분석은 중요하다.

### 1) 1인칭 '나'의 독백과 그들의 삶

김연수의 단편소설 「모두에게 복된 새해」(2007)는 주인공인 '나'와 아내의 외국인 친구, 인도 출신 불법체류자 '사트비르 싱'이 만나면서 전개되는 이야기다.

아내의 대화상대인 이 외국인 친구, 사트비르 싱이라는 이름의 인도인이 집으로 찾아온다는 얘기를 미리 전해들었음에도 막상 문을 열고 이 친구가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당황스러웠다. 하루 종일 낮은 구름들이 잔뜩 하늘로 물려 다닌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다. 이 친구의 고향은 편자브라는데, 지금껏 나는 편자브사람은 커녕 인도 사람도 만나본 일이 없었다. 사실 편자브가 인도의 어느쪽에 붙어 있는 지방인지조차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턱수염이 덩수룩한 얼굴을 쳐다본 일도 그렇게 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손을 잡아 본 일도 내게는 그게 처음이었다.

인용 부분은 아내의 친구, 인도인 싱에 대한 첫인상을 서술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작가는 '나'라는 인물을 통해 이방인에 대한 낯설은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당황스러웠다', '감을 잡을 수 없었다'. '내게는 그게 처음이었다' 등의 표현을 통해 '나'가 얼마나 그와의 첫 만남을 낯설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난다. 이러한 나의 느낌은 소설 전체를 일관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외국인이며, 말도 서로 통하지 않는 아내 혜진과 싱이 어떻게 서로를 친구로 생각할 수 있을지에 대해 낯설어 한다.

주인공 나는 몇 년 동안 아내와 대화를 하지 않은 채 단절되어 있다. 서로 같은 말을 쓰며 가장 가까운 존재임에도 소통하지 못하는 부부의 상황은 소통이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나 사랑을 통해 얻어지는 것임을 느끼게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외국인 싱의 등장은 아내와 불통을 겪고 있는 나의 깨달음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였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아내와 친구가 되었다고 했으나 정작 아내나 친구의 심경을 설명해주진 못하고 있으며, 아내와 외국인의 이상한 친구관계를 바라보는 남편인 '나'의 시선이 중요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은 작품의 시점이 1인칭 '나'이며, 작품 안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화자가 '나'이기 때문이다. 1인칭 소설에서는 화제가 되어 있는 인물들의 삶은 화자가 이해하는 국면에 종속하게 된다. 실제 일어난 일보다도 화자가 일어났다고 믿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화제 대상이 된 작중 인물보다도 화자 자신이 작품의 주인공이라는 역설이 성립되는 것이다. 화자의 작중 인물에 대한 이해는 화자의 변모나 성숙을 잘 보여주게 된다.<sup>5)</sup>

김연수의 소설은 타자를 소설의 주요 등장인물로 등장시키고는 있지

---

5) 유종호, 『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2009, 373쪽.

만, 이런 설정은 타자 자체의 삶을 보여주려 하기보다는 내 안의 타자성과 낮섬을 바라보는 계기를 작용한다. 이 소설이 1인칭 독백과 같은 문체로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실을 서술하는 특성 역시 자신에 대한 나르시즘적 성찰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한편 김재영의 소설 역시 1인칭 '나'를 통해 이주 결혼 여성의 삶을 재현한다. 우선 「꽃가마배」(2007)는 그들과 우리의 소통의 불가능성이 생기는 지점을 정확히 보여준다.

처음부터 고모는 여자를 믿지 못했다. 고모가 여자를 의심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여자가 돈을 벌기 위해 아버지한테 시집 온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매달 여자네 집으로 얼마의 돈을 부쳤다. 그 돈으로 여자네 병든 어머니와 사업 실패로 알거지가 된 아버지, 그리고 어린 동생들이 먹고 산다고 했다.

- 김재영 「꽃가마배」부분

앞에서 언급했듯 타자와의 소통에 필요한 것은 언어 그 자체는 아니다. 위의 소설에서 고모는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 외국에서 여자를 데리고 와 놓고는 돈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 여자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리라고 의심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한다. 돈으로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어서 사랑을 샀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은 소설 속의 인물들을 괴롭히는 주요 원인이다. 이 소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능 르타이보다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를 화자로 소설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이 소설에서 주인공 '나'와 미국인 남자 친구 마이클과의 관계는 능 르타이와 한국인과 맺는 관계와 평행하게 놓여 있다. 소설 속에서 '나'는 인종적, 국가적 열등성 때문에 마이클의 부모로부터 결혼허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능르타이와 같은 결혼이주여성, 혹은 이주노동

자들이 입국하는 나라이지만 한편으론 미국의 불법체류자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 국민들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주노동자인 능 르타이나 '나'의 처지는 유사하다. 따라서 나의 현재 처지에 대한 설명은 곧 작중 인물인 능 르타이의 내면일 수도 있다.

이 소설은 능 르타이가 주요 인물이지만, '나'라는 화자와 그가 겪는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되기 때문에 능 르타이를 이해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다. 작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능르타이의 아버지의 편지를 통해 능 르타이라는 인물을 이해시키려 한다. 딸을 팔아먹을 정도로 집이 망하진 않았다는 능 아버지의 편지를 통해 작가는 능의 결혼이 단순히 돈 때문은 아니었음을 암시하려 한다. 즉 작가는 아버지의 편지를 통해 드러나지 않던 능 르타이의 생각을 표현하고자 한다. 즉 편지를 통해 능 르타이라는 하위주체는 아버지의 입을 통해 말할 기회를 얻게 된다. 능은 주인공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하는데, 작가는 결론 부분에서 '나'가 그 여자에 대해 생각하는 부분에서도 사랑과 결혼의 문제를 등장시킨다.

“여자는 아주 예쁘고 행복한 신부이고 싶었을 거다.”라는 나의 독백은 여자에 대한 연민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여자의 바람은 좋은 배필을 만난다기보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작중 화자인 수경의 희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능르타이의 문제는 인종 문제만이 아니라 자본의 문제, 남성과 여성이라는 젠더의 문제가 혼합되어 있다. 마이클과 수경의 결혼 역시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작품의 결말 부분에서 아름다운 결혼에 대한 환상으로 능 르타이의 아픔을 치유하려는 것은 적어도 능 르타이의 관점에서 보면 비현실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은 이 소설 역시 능 르타이라는 태국 여성이 아니라 1인칭 화자인 수경이 타자인 능 르타이를 이해하고, 그의 배다른 동생을 포용하는 성숙에 도달하는 성장이 중요한 주제의식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 2) 3인칭 ‘그’와 타자의 이야기

김재영의 「아홉개의 푸른 쏘냐」는 3인칭과 1인칭 시점을 교차하면서 두 주인공의 삶을 재현하고 있다. 우선 3인칭으로 서술되는 시점에서 작가는 일종의 전지적 시점의 변형으로 작중 인물 중의 한 사람인 ‘그’가 관찰한 대로 플롯을 전개하고 이 인물에 관해서만은 전지적 태도를 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소설은 한때 운동권이었던 러시아 유학을 다녀온 ‘그’와 같은 운동권의 친구였던 윤경이 한국에 이주 노동자로 들어와 사창가를 전전하게 된 러시아 여성 쏘냐를 우연히 돕게 되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사건의 전개는 ‘그’의 관점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쏘냐에 관한 이야기는 러시아로부터 쏘냐와 함께 한국에 들어오게 된 달팽이가 ‘나’의 시점으로 서술되는데, 달팽이는 관찰자적인 태도로 쏘냐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즉 3인칭인 ‘그’가 알지 못하는 쏘냐에 관한 정보를 달팽이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쏘냐가 한국에서 겪었을 폭력적인 현실이 달팽이의 입으로 전달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쏘냐의 직접적인 목소리와 겹쳐진 것이기도 하다. 상징적으로 볼 때 달팽이가 쏘냐와 함께 러시아로부터 한국으로 들어온 존재이고, 쏘냐와 함께 고향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쏘냐의 분신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작가는 왜 화자로 쏘냐를 설정하지 않고 굳이 달팽이를 설정한 것일까.

침상 위에는 짙은 눈 화장을 한데다가 한쪽에만 긴 인조 속눈썹이 붙어 있는, 밀랍 인형처럼 병적으로 하얗고 마른 여자가 누워 있었다. 도로 쪽으로 열려 있는 창문에서 일몰 직후의 훈훈한 바람이 불어와 여자의 금빛 머리카락을 장난치듯 건드릴 뿐 여자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차체에 부딪혀 넘어질 때 생겨난 듯한 입술 위의 상처 부위에서 장미꽃잎처럼 천천히 말라가고 있는 선홍빛 핏자국만이 그 가냘픈 몸체가 살아 있는 생명체라는 걸 증명했다. 망자에게 말을 거는 듯한 어색함을 느끼며 그는 입을 열었다.

이는 이 소설의 중심이 쏘냐의 이야기라기보다 ‘그’와 ‘윤경’ 혹은 타자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놓여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쏘냐의 각박한 삶이 쏘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바라보는 그를 통해서 소개된다. 이런 의미에서 3인칭 ‘그’의 시점으로 서술되는 부분은 쏘냐에 관해 제한적인 정보를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응급실에 누워있는 다친 쏘냐를 ‘장미꽃잎같은 핏자국이 묻어 있는 쏘냐의 금빛 머리카락을 훈훈한 바람이 불어와 장난치듯 건드린다’는 낭만적인 색채로 묘사한다.<sup>6)</sup> 만약 달팽이 입을 통해 묘사된 쏘냐에 관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는 이런 식으로 묘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작품 안에서도 1인칭 달팽이와 3인칭 그가 서술되는 부분은 전혀 별개로 서술되고 있는데, 이는 쏘냐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서술이 작가의 의도라면 작가는 쏘냐의 삶보다는 주인공인 ‘그’의 삶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가는 ‘그’라는 인물의 고민과 기억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여성에 대해 낭만적이며 순결한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는 것이다.

그가 쏘냐를 도와주는 이유는 바로 쏘냐로 알고 있는, 러시아에서 만났던 한 여성에 대한 죄의식과 연민에서 출발한다. 이는 그가 자신의 억압적 의식, 어쩌면 자신 안에 있는 타자와의 화해를 위해 현실 속의 타자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작가는 비극적 현실의 승화를

---

6) 복도훈은 금발의 쏘냐가 한국에서 폭력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순결성과 숭고함을 지닌 것으로 형상화되는 것은 작가의 리비도가 투사되어 만들어진 이미지나 환상이라고 규정하며 작가를 비판한다. (「연대의 환상, 적대의 현실」, 『문학동네』, 2006 겨울호) 이에 대해 최강민은 「경계를 넘어서」(『작가와 비평 : 타자, 마이 너리티, 디아스포라』 6호, 2007)에서 김재영이 이주노동자를 순결하게 그린 것은 이주노동자는 불결, 열등, 야만하다는 고정관념에 대한 해체에 의지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전략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숭고한 이미지와 불결하고 야만적인 이미지는 모두 여성-타자를 바라보는 동일한 시선이라는 점에서 쉼터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 부분의 문제는 소설의 시점 문제를 통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위해 고향의 기억을 가져온다. 쏘나의 행복한 기억을 가져옴으로써 쏘나의 현실이 치유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의식이 치유된다.

이 소설은 이주 노동자인 쏘나의 삶을 다루고는 있지만 타자의 재현을 구조적으로 보여주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달팽이를 통해 쏘나의 내면과 꿈이 기술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쏘나가 느꼈을 고통이나 슬픔은 재현되고 있지 않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편지나 고백체, 일인칭 시점의 변형을 통해서 들려주는 얘기는 몇몇 개인의 내면세계나 그 섬세한 교류의 전달에는 적합하지만 당대 사회의 객관적 현실의 묘사에는 적합할 수 없다(유종호 370).

작가에게 있어 시점은 일차적으로 소재를 통제하고 거기에 형식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일단 시점이 정해지면 시점의 선택과 이에 적절한 언어양상이 작중인물이나 사건의 제시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작가가 시점을 정하는 것은 작품의 구조 미학과 연관된다. 그리고 이런 효과가 독자에게는 미적인 경험을 넘어 인식론과 관련된다. 따라서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소설의 경우 시점의 문제는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공선옥의 소설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소외된 타자들의 삶을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그리면서 한 인물에 집중하지 않고 다양한 인물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과 현실에 관해 이야기하게 한다.

바람을 피운 남편 용철이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한시 바빠 고향을 떠나고 싶었고 무엇보다 간암에 걸린 오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에 누군가는 어디로든 가서 돈을 벌어야 했던 것인데 그때 마침 한국으로 올 기회가 생겼던 것이다. (중략) 한국으로 가고 싶긴 하지만 외사촌처럼 불법체류자로 살아갈 자신도 없는데다가 자신도 고향에서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농사짓고 살 자신이 있어 결혼을 결심했던 것인데

- 공선옥, 「가리봉연가」 부분

위에 인용한 작품은 공선옥의 연작소설 『유랑가족』 중 명화라는 조선족 출신 이주결혼여성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작품이다. 인용 부분은 명화가 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기술되는 부분이다. 위의 화자는 명화의 시점에서 그녀의 내면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명화의 한국행에는 무엇보다 오빠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더 유리하긴 하지만 불법 체류라는 문제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한국 농촌의 노총각과의 결혼 결정은 일종의 타협안인 셈이다. 이렇듯 결혼에 대한 낭만적 환상은 애초에 없었기에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심해질 때 같은 조선족 출신인 승애가 자신을 부러워할 때도, 헤어진 한국 남편인 “못난 김기석이 옛다, 너나 가져라, 하는 마음이 들어 혼자서 비식비식 웃음이 다 나오는 것이다.” 명화에게는 결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 현실 자체였기 때문이다.

이 소설은 명화나 승애 등의 인물의 시점을 통해 이야기가 전개되므로 실제적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문제시하는 이주여성노동자로서의 고민이 토로된다. 이는 서술 시점 자체를 작가가 3인칭 시점이면서도 그들 타자를 바라보는 화자가 아니라, 타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을 화자로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작품 안의 서술구조가 자연스럽게 타자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데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작가는 직접 화법을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또 다른 타자인 한국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려주는데, ‘돈 없으면 인간 대접 못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한 노동자의 말은 앞서 언급한 명화의 생각과 같다. 초국가적 자본주의의 지배에 따라 한국까지 흘러온 이주 여성 노동자들, IMF 이후 대량화한 부만큼, 대량화된 가난의 문제가 심각한 한국 사회의 현실 안에서 타인의 가난이나 배고픔에 대한 도덕적 관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sup>7)</sup> 소설은 이러한 강박한 현실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공선옥의 소설의 특성은 3인칭 전지적 화자를 쓰면서도 시점을 각 인물들에 겨가며 서술함으로써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도록 한다. 이런 수법은 1인칭 주인공이나 관찰자 화자나 혹은 3인칭 전지적 시점이면서도 주요 인물에 집중하는 서술보다 다양한 타자-인물들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방식이므로 타자 재현에 유효한 방법으로 보인다. 하위주체의 말하기의 어려움, 그것은 이미 중심-주체의 의식을 거친 것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소설에서 중심-화자의 의식으로부터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3인칭 서술의 방법은 타자의 삶을 재현하는 보다 생산적인 방법이다.

#### 4. 혼혈 아동의 성장과 이상화된 가족 이데올로기

다문화 사회의 양상은 외국인 이주자 1세대가 겪는 문화적 경험으로 부각되지만, 우리 사회의 잠재적 갈등과 문화 소통의 가능성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 2세'<sup>8)</sup>의 삶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인구변화는 가족의 구성방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한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 주요 원인이다.<sup>9)</sup> 우리 사회가 진정한 다문화 가정 및 다문화 사회로서의 정체성을 다룰 때도, 결혼 이주 외국인이나 노동 이주 외국인의 2세가 겪게 될 다양한 문화적 경험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그 논의의 초점이 모아질 것이다(허정 385).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 이주자 1세대를 타자로 바라보던 시선에서, 외국인 이주자 2세대가 스스로의 눈과 입으로 '말'하는

7) 방민호. 「가난에 대한 천착과 그 의미」. 공선옥 소설집 『유랑가족』. 서울: 실천문학사, 2005. 253-266쪽.

8) 2004년 4월 건강가정시민연대는 혼혈이라는 용어 대신 '다문화가정2세'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

9) 김현기 외. 『2018, 인구 변화가 대한민국을 바꾼다』. 서울: 한스미디어, 2008.

것을 들어야 한다. 또한 이들 소설들은 외국인 이주자 2세의 성장담을 담고 있어, 서구 전통의 '성장소설'과 다문화 사회의 '성장소설'의 의미 차이를 확인할 수도 있다.

김재영의 「코끼리」와 김려령의 『완득이』는 혼혈 아동의 시선으로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대표 소설들이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거나(「코끼리」), 부모의 한쪽은 한국인이고 다른 한쪽은 외국인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며(『완득이』), 한쪽 부모가 없는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다. 다른 외국인 이주자를 다루는 소설들이 그들을 3인칭의 시점에서 타자화하는 서술 방식을 택하고 있다면, 이들 소설은 한국 사회의 정상성과 이들의 일탈성의 충돌 속에서 상처받은 1인칭 화자가 스스로 타자화하는 방식, 즉 어린 영혼의 독백으로 재현된다.

『완득이』는 불행한 일상(부모의 이혼 및 가난, 사회와 학교로부터의 천대 등)으로 자리잡은 외국인 이주자 2세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담고 있다. 교회에 나가 하느님에게 담임 선생님을 어서 잡아가라고 저주하는 완득이는 옆집 말괄량이 동생 같은 이미지로 그려진다. 이야기는 크게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다루는 부분과 불량학생인 완득이가 성장하는 이야기로 나뉘어져 있다. 전체 이야기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가 부각되지만, 이야기의 유희한 흐름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다. 그보다는 난쟁이 춤꾼인 아버지와 외국인 노동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벌어지는 우리 시대 하층민이 겪을 수 있는 비극적 삶의 궤적이 청소년인 완득이의 삶을 관통하고 있으며, 그러한 삶을 버텨내고 '밝은 현실'을 발견해 나가는 완득이의 모습은 외국인 이주자 2세의 현실 적응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 청소년들의 갈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 소설은 '외국인 노동자 vs 한국인', '외국문화 vs 한국문화', '가난 vs 부'와 같은 대립적인 양상들을 낭만적인 현실 이해로 대체하고 있다. 학교의 불량학생인 완득이에게 무한한 관심을 쏟는 선생님과 전교1등인 여학생, 그리고 그들 사이 교류되는 배려와 연대는 여타의 '외

국인 이주자 소설'에서 발견할 수 없는 긍정적인 한국인, 한국 사회의 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완득이가 자신의 현실을 잊기 위해 택한 권투는 여타의 유사한 스포츠 드라마의 플롯처럼 삶의 긍정성을 지향하는 유쾌함과 미래에 대한 건전한 비전을 갖게 만든다. 결국에 चु꾸인 아버지와 외국인 노동자 어머니는 두 사람 다 가난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진 못하지만, 자신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 완득이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 완득이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배려와 존중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반항과 고뇌가 의도적으로 삭제된 완득이의 '독백'<sup>10)</sup>은 그 현실적 감각과 의미라는 측면보다는 '청소년 문학'의 교훈주의로 읽힌다.

이에 비한다면, 김재영의 「코끼리」는 외국인 이주자 2세가 상상하는 현실의 비극적인 상을 제시한다. 『완득이』가 청소년 문학에 가깝고, 「코끼리」가 본격소설 쪽에 가까운 이유도 현실재현에 있어서 그 내면화된 비극성을 통찰하는 시선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나뉜다.

소설 속 '나'는 네팔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와 조선족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호적이든 국적이든 어느 것도 가지지 못한 13살 소년이다. 1년여 전에 "불행이 너무나 흔해 밭에 차일 지경"이라며 도망친 어머니를 그리워하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와 단 둘이 산다. 어머니가 돌아와 자신의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도 못한다. 그는 얼굴이 하얘져서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처럼만 보이기를 소망하며 밤마다 세정제로 얼굴을 씻고, 아버지의 손가락을 지키기 위해 '손무덤'을 만들어 기도한다. 이러한 행동들은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바람이며, '얼굴색'만으로 판별되는 인종적 차별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욕망이다. 그러나 '나'는 천상 아이일수밖에 없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들 끼리 싸움이 붙었을

---

10) "대단한 거 하나 없는 내 인생. 그렇게 대중 살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거창하고 대단하지 않아도 좋다. 작은 하루가 모여 큰 하루가 된다. 평범하지만 단단하고 꼭 찬 하루하루를 꿰어 훗날 근사한 인생 목걸이로 완성할 것이다." (『완득이』, )

때 청량음료인 ‘쿠우’를 훔치다 들키기도 한다. 가난과 배고픔, 열악한 주거환경이 만들어내는 불편함과 고통은 경제적 토대에 대한 문제의식보다는 한국 사회의 인종적 차별과 밀착된 분노와 결부된다.

「코끼리」에는 한국인, 한국 문화에 대한 비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정체성 혼란을 겪는 외국인 이주자들을 형상화해 놓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단일민족이라 외국인한테 거부감을 갖는다고?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한테 불친절한 거라고? 웃기는 소리 마. 미국 사람 앞에서는 안 그래. 친절하다 못해 비굴할 정도지.”라고 말하는 쿤은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폭로하고 있다. 매년 히말라야를 풍경으로하는 달력을 사오고, 몸이 아플 때도 고향에서 익힌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는 ‘나’의 아버지는 네팔로 돌아가기 보다는 잠들어 잠꼬대를 할 때도 “난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 거기 내 가족이 있어. 제발, 보내줘. 일자리도, 이웃도, 내 청춘도 다 거기 두고 왔단 말이야. 제발.....!”이라고 외치는 한국에서의 삶에 밀착되어 있는 존재이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권리가 박탈되고 소외되고 인종적으로 규정된 하위계급”(월 김리카 외 496)이 된다. 그러한 그들을 보면서, ‘나’는 창에 걸려 있는 코끼리 상에 한 없이 빠져드는 상상에 빠진다. 『완득이』에서와는 달리 삶은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이며, 희망이라는 어휘로 치장할 수 없는 궁극의 심연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코끼리」는 세상의 고통과 악을 무기력하게 응시하고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무구한 화자를 내세움(복도훈 477)”으로써, 다문화 가정 2세의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나마스테』, 『캔들 플라워』는 외국인 이주자 1세대의 삶을 넘어서서 다문화 시대의 가족의 의미를 탐색하며 성장하는 딸들의 디아스포라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 딸들은 다문화적 환경과 다언어를 사용하며 자신들의 어머니 세대가 꿈꾸었던 이상적 가족의 의미를 찾아나선 혼혈아의 디아스포라를 담고 있다. 소설은 전체적으로 3인칭의 시점을 전제하지만, 주인공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 그들의 의식과 욕망을 드러내고 있으

며, 개인적 성장을 넘어서 '시민' 조건에 대한 의문과 국민국가의 폭력성을 폭로하고 있다.

『나마스테』는 카밀과 신우의 결혼과 수난 과정을 그 자체로 순혈주의 이데올로기와 글로벌 자본주의의 폭력성과 허구성으로 고발(정혜경 89)하고 있다. 네팔인 카밀은 2004년 노동 시위현장에서 산화하고, 불이 붙어 떨어지던 카밀과 충돌한 후 신우도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애린이 열 살 때 죽게 된다. 태어나자마자 두 부모로부터 버려진 애린은 서울 작은 외삼촌집에서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큰외삼촌집으로 옮겨다니며 '무적자'라는 뼈아픈 소외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나는 내 신세가 무적자 같았다. 작은 외삼촌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던 서울에서나 큰외삼촌 집이 있는 버지니아에서 보낸 그 이후나, 나는 언제나 무적자라는 뼈저린 소외감에서 한번도 벗어나지 못했다. <중략> 나는 어머니의 기록에서 '무적자'라는 낱말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흑인폭동에 의해 모든 걸 잃고 나서 큰외삼촌과 작은외삼촌이 한국으로 돌아가자, 못 돌아간다, 하면서 밤새 피투성이 되게 싸우는 장면의 서술 또한 내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무적자'로서의 카르마가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고 내 삶의 중심에 또 아리를 틀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치를 떨었다.

나는 누구인가.

한국인인가, 네팔인인가, 아니면 미국인인가.

나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나마스테』, 371~372면)

혼혈아인 애린의 무적자적 정체성은 어머니 쪽 가계에서 유전된 것이다. 미국으로 떠났던 외할아버지로부터 네팔인 카밀을 사랑한 어머니에게로 이어져 애린에게 이어지고 있는 '무적자'로서의 정체성은 보편적 가치로서의 '국적자'의 정체성에 대해 상당한 문제의식을 던진다. 한국인인지 네팔인인지 미국인인지 스스로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애린은 다문화적

이고 혼종적인 정체성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있다. 이러한 애린의 상태는 국가와 인종의 경계를 만드는 가부장제적 욕망의 역설적 재현으로 보인다. 애린은 카밀이 두려워했던 인종적 차별의 흔적을 자신의 피부에 새기고 애린은 국가와 문화의 경계들을 힘겹게 넘고 있다. 소설 속에서 이러한 애린의 무적자로서의 삶은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위치하고자 하는 욕망이 탈색된 소외감과 정신적 피로감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욕망은 어머니인 신우의 욕망(카밀이 한국인 되어 가족이 되는 삶)과 동일시된다.

『나마스테』는 현재를 사는 2010년의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문화적 정체성 혼란을 겪고 그것을 긍정하는 2021년의 애린을 통해서 진정한 타자와의 슬픈 연대가 형성된다. 그러나 『나마스테』가 가부장제적 부권 의식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애린은 아버지의 가계와 마주함<sup>11)</sup>으로써 자신의 정체성 혼란을 위로받고, 영혼의 정화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카일라스로 향하며 배다른 동생인 카밀과 사비나 자마 이모를 만나고 죽은 아버지와도 정신적으로 교감함으로써 시간과 공간, 인종과 국가를 넘어선 다문화적 가족의 새로운 연대를 낭만적으로 그리고 있다.

『나마스테』의 애린이 다문화적 환경 속에서 소외감과 우울증에 빠져 있다면, 『캔들 플라워』의 지아는 그 혼종적 정체성을 향유하며 ‘긍정적 자존감’을 보여준다. 『캔들 플라워』는 광우병 촛불 집회를 배경으로 캐나다에 살고 있던 혼혈아 지아의 한국 여행기를 다루고 있다. 소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청소년 소설을 읽듯 가벼움과 즐거움을 전해주지만, 그 이면에는 폭력으로 점철된 국가주의와 가부장제적 가족주의를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지아는 독특한 가족 이력을 가지고 있다. “할머니와 엄마는 프랑스인

---

11) “카밀은 어쨌든 나와 피를 나누어 받은 내 동생이었다. 함께 아버지의 고향 마르파에 가서 아버지의 아버지인, 할아버지를 함께 만나고, 또 함께 카일라스까지 가서 아버지의 영혼을 만나는 일도 좋으리라 생각했다.”(『나마스테』, 379면)

이다. 할머니의 고향은 모르도, 어머니는 파리에서 태어났다. 조안 아줌마는 체로키 인디언의 혈통을 가진 캐나다인이다. 나도 캐나다인”(24면)이라고 밝히면서, “우린 국적 같은 거랑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다보니 다문화적 가족 구성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지아 역시 자신의 그러한 가족 구성을 가부장제적 구조로 이해하기 보다는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게 된다. 이 가족에게 ‘아버지’ 혹은 ‘남자’의 존재는 삭제되어 있다.<sup>12)</sup>

지아가 한국에 와서 알게 된 사람들이 모두 가족 내 아버지의 폭력과 독선 때문에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작가의 문제의식은 한국 사회의 가족구조와 국가조직의 문제를 동일시하고 있다. ‘아버지’로부터 자유로운 지아는 “여러 나라 말로 글을 쓰고 수천 가지가 넘는 사람의 언어를 보존하는 일”을 좋아하고, “사람의 언어 못지 않게 동식물과의 대화”를 좋아한다. 애린이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적인 현상을 고통스럽고 내밀한 소외감으로 받아들였다면, 지아는 그러한 환경 자체를 자신의 정체성 그 자체로 받아들이며 즐기고 있다.

그런 지아에게 한국은 ‘아버지들의 폭력’으로 점철된 나라다. 지아가 자신의 ‘영혼의 기억’을 찾아 떠난 때는 광우병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촛불 시위를 했던 2008년 5월과 6월의 한국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강행하려고 하고, 그것을 저지하려는 시민들의 시위를 무력경찰로 막는다. 지아는 자신이 살았던 공동체와 새롭게 경험하게 된 경찰국가 한국을 비교하며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두려움, 정체성 위기를 서술한다.

---

12) “나는 내가 세상에서 태어나는 데 씨앗으로 기여한 존재들에 대해,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재들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나를 낳은 사람은 분명 엄마이고, 엄마가 누구와 잠을 자고 나를 낳았는지는 엄마에게 중요한 일일 뿐이다.(『캔들플라워』, 22쪽)”

한국 경찰에게 시민은 무엇이며 시민에게 경찰은 또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지오의 뇌리를 점령했다. 정말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해야 하는 자신이 레인보우 산 밑에서 세상 물질 모르고 행복하게 산 이방인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인 남자의 핏줄이 이끌어 이곳의 아픔과 무지에 한 주체자로서 개입시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거대한 혼돈이 시작되었다.(『캔들플라워』, 176면)

『캔들 플라워』에서 형상화된 지아의 한국행은 어릴 적 헤어진 쌍둥이 형제를 찾기 위한 여행이었지만, 바로 자기 자신을 찾는 성장 드라마이다. 또한 한번도 상상하거나 경험해본 적이 없는 아버지와 국가에 대한 ‘첫’ 경험이기도 하다. 지아는 이방인으로서도, 아버지 핏줄의 나라라는 자의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자신을 깨닫고, ‘국가’를 경험하며 자신의 마음 속에 ‘괴물’이 살고 있다는 것을, ‘내 속의 괴물과 싸우는 자신만의 집회’를 끝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시민을 존중하지 않는 한국은 ‘거대한 혼돈’일 뿐이다. 지혜로운 소녀 지아는 국가 단위가 너무나 커 소통할 수 없다면, 작은 마을 단위의 공동체로 나누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른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도움과 사랑을 받아야 할 소녀들이 ‘국가’와 싸우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아는 “레인보우에서 지오가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라면 이곳은 이상하게도 소녀들이 어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말하며 국가시스템의 위선과 시민들의 연대의식과 혁명의지를 환기해낸다. 『캔들 플라워』는 “호박보다 늦게 꽃이 피는 박꽃의 계절”에 박꽃에 물려드는 박각시들처럼 하나 둘 촛불들이 촛불축제 기간 중 죽은 숙자씨 집으로 모여들면서 ‘낭만적으로’ 끝나고 있다. 재개발 달동네에서 딸들의 연대는 시민들의 연대가 되며,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게 만든다.

‘카르마’와 같은 신비주의적 요소가 작품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나마스테』), 지아가 살던 캐나다 마을이 보여주는 이상향적

인 모습(『캔들플라워』)은 다문화적 가정의 타자에 대한 인식도 대안 가족으로서의 문화적 공동체에 대한 문제의식도 반감시키는 면이 없지 않다. 또한 이 소설들은 국민국가 내의 가족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의심하면서도 결국 이상화된 가족으로 되돌아가고 만다. 『라마스테』와 『캔들 플라워』에서 혼혈아 딸들은 다문화적 혼종성을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성장하며, 부재하는 아버지의 대체물인 남동생을 욕망하고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가부장제적인 문화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두 소설에서 외국인 이주자 1세대를 타자로 설정하는 것은 권력적 우위에선 '주체'로서의 시선이 아니라, 애린이나 지아와 같은 다문화적 혼종성을 내면화한 혼혈아들의 시선이라는 점에서 타자의 설정과 그들과의 연대가 보다 긍정적으로 이해된다.

## 5. 타자 재현의 윤리성과 주체로서의 정체성

한국이라는 문화적 타향에서 철저히 타자로서 소외당하는 여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대중 매체의 문화적 재현물에 드러난 타자 재현의 양상은 중심-작가의 이상화된 시선이 투영된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생활현장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이주여성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낸다거나 다문화가정의 가족구성원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의 일상을 보여주고 또한 자국의 부모,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을 넣음으로써 이들의 '고향을 떠난' 처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 한다는 기획의도의 긍정적 측면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또 다른 문화재현물인 소설도 마찬가지이다. 하위주체의 언어는 이미 중심-주체의 의식을 거친 것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소설에서 중심-화자의 의식으로부터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서술의 방법은 타자의 삶을 재현

하는 보다 생산적인 방법이다. 또한 권력적 우위에선 ‘주체’로서의 시선이 아니라 다문화적 혼종성을 내면화한 타자, 즉 혼혈아들의 시선 설정은 그들과의 연대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읽을 수 있게 된다. 이때 이러한 방법론적 시도는 타자의 윤리와 만난다. 주체가 자신의 조건과 상황, 가능성의 영역에서 타자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낮은 타자의 도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함을 의미하는 이 윤리는 이방인, 타자 등에 대해 무조건적이고 순수한 환대를 포함한다.<sup>13)</sup> 이는 타자의 편에 서서 온전히 그들의 말과 언어를 경청하고, 나아가 그들이 말하도록 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레비나스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우리들 각자는 각 사람에게 대해서 각 사람에게 앞서 잘못이 있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못이 더 많다”는 말을 인용한 바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이미 중심으로 살아가는 작가나 지식인이 이 땅으로 이주 온 타자보다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한다. 이런 의미에서 타자를 재현하는 대중미디어나 문학 작품은 진정성 있는 통찰과 재현을 통해 그들이 여기-이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주체로서 존재하며, 그들의 말과 실천을 가지고 있음을 충실히 독자들/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바트 무어-길버트, 『탈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 이경원 옮김. 과주: 한길사, 2001  
 복도훈, 「연대의 환상, 적대의 현실」, 『문학동네』 권.호(2006): 페이지  
 유종호, 『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2004.  
 윌 키피카, 장동진 외,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서울: 동명사, 2005.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편), 『여성학 방법론』. 서울: 한학사, 1986.

13) 김애령, 「이방인의 언어와 환대의 윤리」, 『젠더와 탈경계의 지형』, 이화여대 출판부, 2009, 54-57면.

- 정혜경. 「가족서사의 재구성, 그 지난한 탈주」. 『문학수첩』 권.호(2008): 페이지 프리드리히 텐브룩. 『막스 베버의 사회과학방법론』. 차성환 편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0.
- 한건수, 설동훈. “결혼중개업체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06.
- 허정. 「코시안과 한국문학」. 『실천문학』. 83(2006): 384-403.
- Constable, Nicole. *Romance on a global stage*. Los Angeles: California UP, 2003.
- Harding, Sandra. "Introduction: Is There a Feminist Methodology?" *Feminism and Methodology*. ed. Sandra Harding Milton Keynes: Open UP, 1987. pp. 1-14.
- Minh-ha, Trinh T. *Woman, Native, Other*. Bloomington &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 Minh-ha, Trinh T. *When the Moon Waxes Red: Representation, Gender and Cultural Politics*. New York & London: Routledge. 1991.
- Reinharz, Shulamit. *Feminist Methods in Social Research*. London: Oxford UP, 1992.
- Rubin, Gayle. "The Traffic in Women." *Toward an Anthropology of Women*. ed. Rayna Reiter.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9.
- Schutz, Alfred. *The Phenomenology of the Social World*. Evanstone: Northwestern UP, 1967.
- Schutz, Alfred. *Life Forms and Meaning Structur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2.
- Stanley, Liz and Sue Wise. "Method, methodology and epistemology in feminist research processes." *Feminist Praxis: Research, Theory and Epistemology in Feminist Sociology*. ed. Liz Stanley.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0. pp. 20-60.
- LG. TV 광고. LG 홈페이지.  
[http://www.lg.co.kr/press/tvad/company/company\\_list.jsp](http://www.lg.co.kr/press/tvad/company/company_list.jsp)
- Kbs. 「러브 人 아시아」. kbs 홈페이지.  
<http://www.kbs.co.kr/1tv/sisa/loveasia/program/index.html>
- <http://www.hani.co.kr/popups/222950>

## ABSTRACT

Representing the Other in Mass Media:  
Focusing on Current TV Programs and Modern  
Novels about Migrants

Suan Lee, Jin-Hee Kim and Yoon-Ho Oh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was planned to overcome theoretical abstractness about foreign migrants' identity and to clarify the aspects of discourse about the "other" that are internalized within us and about the gender identity of foreign migrants, treating them and us in the context of inter-subjectivity. For this purpose, methodology of cultural hermeneutics and standpoint theory have been cited. That is, we intend to examine "how foreign migrants exist within us" through analyzing how foreign migrants are shown in "representative media" (TV documentary programs and modern novels).

First, through the method of standpoint theory, we examine the possibility of interpreting the lives and cultures of marriage-migrant women using methods to reveal facts and to illuminate how reality is formed into image through mass media representation. In addition, by focusing on migrant-laborer novels, we examine the aspects of representing the other with a focus on viewpoint, narrator, narrative, and relationships among characters represented. Also, by focusing on monologues by mixed-blood children, the process by which they form their

multicultural identity is examined, as are aspects of narrative strategies that internalize idealized family ideology.

Thus, the process of making discourse about the “other” within us, which characterizes the representation of foreign migrants, is deeply analyzed and interpreted in the extended discussion of gender studies in this paper. Also, the foreign migrant as another “subject” within ourselves is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s of ethics and humanities.

주제어: 문화해석학 (cultural hermeneutics), 타자 (the “other”), 이주민(migrants), 재현(representation), 대중매체(mass media)

논문제출일: 2010. 08. 30

심사완료일: 2010. 09. 15

게재확정일: 2010. 09. 15